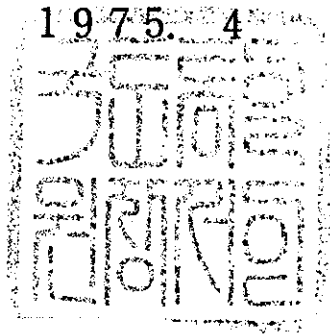


國統 75-7-02



3170

國內統一弘報指針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4.

}

研究責任者： 李 鍾 潤

目 次

序 論	3
第一章 우리의 統一政策	5
1. 統一의 當爲性	7
2. 北進統一政策의 調整	8
3. 統一追求의 3가지 方法	9
4. 平和統一의 摸索	12
5. 우리의 平和統一政策	13
第二章 北韓의 對南宣傳方向과 內容	15
1. 對南宣傳의 基本目標	17
2. 對南宣傳의 戰術과 方向	21
가) 「平和統一論」과 「自主的 平和統一」	21
나) 惡辣한 反政府 誹謗宣傳	27
다) 南北會談의 停滯責任 詮가	29
3. 最近에 나타난 特徵的 動向	31
第三章 統一弘報의 特殊性	35
1. 弘報의 一般的 概念	37
가) 弘報-宣傳	37
나) 統一弘報의 問題點	39

2. 統一弘報의 特殊性	42
가) 統一弘報는 国力弘報	42
나) 統一弘報의 要員은 國民	42
다) 北韓의 對南宣傳의 逆利用	43
第四章 國內統一弘報 指針	45
1. 統一弘報의 基本目標	47
가) 우리統一政策의 合理性	47
나) 北韓의 對南宣傳의 虛構性	49
다) 우리體制의 優位性	51
2. 統一弘報의 效果的 展開方案	54
가) 弘報效果의 諸方法과 指針	54
나) 매스컴의 效果的 活用	57
① 미디어 從事者의 統一意識 提高	58
② 弘報媒体에 對한 公信力	60
다) 教育을 통한 底辺擴大	61
라) 弘報事業과 信念	65
마) 「統一弘報戰略委」설치	66
結 論	69

序 言

우리의 統一弘報는 지금까지 公式的이고 抽象的인 原則論 解說에
서만 맴돈 狀況이어서 広範圍한 國民 階層의 理解와 共鳴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弘報 對象을 全혀 意識하지 않고 全体 國民을 同
一한 對象으로 劃一的인 觀念 弘報만 展開해 왔다는 意味다.

따라서 이 研究는 좀더 具體性 있는 國內 統一弘報의 指針을
設定하고 그 展開 方案을 構想한 것이다.

우리의 統一弘報의 指針을 設定하고 展開하기 위해선 우리의 統
一 政策의 基調를 理解하고 北韓이 내세우는 統一戰略의 表裏性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은 8.28 金英柱의 聲明으로 南北 對話를 一方的으로 破棄한
후 韓半島 赤化統一의 基本 戰略을 더욱 一貫性있게 對南宣傳을
展開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 南北 사이에는 任意의 時刻에 戰
爭이 再發될수 있는 심상치 않은 事態가 빚어지고 있다』고 戰爭
挑發을 暗示하고 이의 責任 轉嫁와 併用해서 平和를 偽裝한 對南
宣傳·煽動을 不斷히 展開하는 것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機關
紙 노동신문(1975年3月16日字)을 통해 『反共·謀略 소동을 당
장 中止하고 民族 反逆的인 6.23 宣言을 取消 할 것을 南朝鮮側
에 強力히 要求한다』며 『膠着 狀態에 빠진 南北對話를 正常化하
고 對話를 통해 나라의 統一 問題를 自主的으로 平和的으로 풀어

나가자면 이와는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다』는等 繼續해서 우리의 6.23 宣言의 對抗 宣傳을 極大化하고, 韓半島의 統一問題와 直結되는 南北會談의 主導的 추진 停滯 責任을 轉嫁하려고 策動하고 있다.

올해 1975年으로서 单独 戰爭 能力을 갖춘 北韓은 平和 協定과 南北 合作을 내세워 平和統一 攻勢를 取하면서 軍備 縮小를 主張, 유엔軍 司令部를 解体하고 駐韓 美軍의 撤収를 피해 大韓民國의 防衛力 弱화를 企圖하면서 對外的으로는 韓半島 赤化를 위한 國際与件 造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이와 같은 偽裝 平和 攻勢와 對南 心理戰의 策動을 沮止하고 大韓民國의 眞實한 平和 意志의 歷史的인 統一政策을 遂行해 나가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우리 政府의 眞摯한 態度와 使命이 따라야 하고 이를 說得力 있게 昇華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直面한 統一 弘報의 意義와 重要性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서 ① 우리 政府의 統一政策 ②北韓의 對南 宣傳方向과 內容 ③우리 弘報가 지닌 特殊性 ④우리 統一弘報의 展開 方案等を 發想 各 階層을 網羅해서 어필 할수 있도록 追求해 보았다.

第一章 우리의 統一政策

1. 統一의 當爲性
2. 北進統一政策의 調整
3. 統一追求의 3가지 方法
4. 平和統一의 摸索
5. 우리의 平和統一政策

第一章 우리의 統一政策

1. 統一의 當爲性

우리 韓國民族은 5千年의 悠久한 歷史를 形成하며 같은 言語, 같은 文化, 같은 傳統을 지녀온 單一 民族으로 生存해 왔다.

西紀 676年 新羅에 依해 三國 統一이 成就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 까지 1,300年 동안 韓半島를 生活의 터전으로 하여 單一民族, 單一國家로서 살아 왔으며 또 發展해 왔다.

그것이 不幸이도 世界 第2次 大戰의 終結과 그뒤의 東西 世界의 이데올로기의 分極化 過程에서 우리 祖國은 南과 北으로 兩斷되었고 4半世紀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 까지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大韓民國과 北韓 政權이 各各 一觸即發의 險惡한 態度로 百萬大軍이 對峙하고 있는 狀況으로 固着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兩斷 現狀은 終戰 30年이 지난 오늘날 東西世界의 地帶트·무드에도 不拘하고 理念과 體制의 異質만 漸漸 深化될 뿐, 元來 하나이었고 또 하나 이어야 할 國土와 民族은 들로 分斷된채 永久化 되어가는 感만 더할 뿐이다.

우리 民族의 뜻과는 달리 外部의 強大國의 人爲的인 分斷으로 겪는 苦痛은 우리 民族 아니고는 到底히 實感하지 못한다. 우리 民族의 統一이 切實히 要請되는 理由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北進統一 政策의 調整

우리의 統一政策은 白頭山 靈峰에 太極旗를 꽂는 國土 收復 政策으로 一貫해 왔다.

國土가 兩斷된후 4半世紀동안 (1945-1970年) 우리는 北韓에 對해서 極度로 否定的인 態度를 取해 왔던 것이다.

北韓에 存在하고 있는 金日成에 依해 樹立된 共產政權을 하나의 不法 集團으로 보아온 것이 事實이다. 南北 分斷問題의 解決을 위한 協商 相對者로서 到底히 認定하지 않았다. 즉 北韓共產 政權에 對한 當爲性의 否認이 實在性의 否認으로 까지 擴大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統一 即 分斷問題 해결은 이 不法 集團을 除去하고 (現實的으로는 힘에 依해) 38線 以北의 領土와 여기에 居住하는 國民들에게 韓國의 主權을 擴大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해 왔다. 더우기 北韓의 共產 政權이 1950年 南侵을 敢行하여 戰爭을 일으킨 事態로 더한층 否定的인 對北姿勢를 굳혔던 것이다.

그래서 武力的인 方法에 依한 北進統一이 우리의 統一政策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徹底한 否定的인 對北政策은 그 非現實性으로 볼때 完全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北進統一 政策이 「유엔 監視下 人口 比例에 依한 南北 自由 總選을 통한 統一」 이란 統一政策과 併用 되거나 相互 交換的으로 받아 들인 것으로 보아서다.

그런데 問題는 모두 極히 現實性이 없다는 點이다.

우리는 지난 30年 동안 누구도 否認할수 없는 分斷 國家의 構成體로서 살아 왔고 또한 살고 있다. 무엇이든 그렇게 오랜 期間동안 持續되는 것은 現實性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0年代 이후 平和 共存 무드의 國際情勢와 韓國을 둘러싼 強 大國들의 和解趨移는 우리에게 現實肯定的 態勢를 갖추게 하여 政策的 調整을 不可避하게 했으나 30年 동안이란 긴 期間동안에 이룩된 南北間의 深奧한 體制와 理念의 異質化는 分斷의 悲劇 以上의 苦痛을 안겨 주는 것으로 성급한 國土統一의 意慾에 앞서 民族的 同質性 회복 및 國家的 同一性 회복이란 現實的 立場이 定立하게 이룬 것이다.

3. 統一 追求의 3가지 方法

지금까지 歷史적으로 考察해 볼때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을 이루는 方法으로 3가지 方法이 各其 追求 되었거나 追求되고 있다.

첫째는 一方에 依한 他方의 軍事的 征服이다.

이 方法에 依하여 統一을 이룩한 國家는 世界 第2次 大戦후 아직 없다.

그것은 2次 大戦後의 分斷國은 強大國들의 人爲的 產物이기 때문에 分斷國家의 어느 一方이 武力으로 現狀打破 또는 變更을 試圖할 경우에는 그것이 分斷國 内部의 問題로만 定義되지 않고 東西 兩大 陣營이라고 하는 陣營上의 問題로 波及되어 國際的 관심

과 刺戟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分断국의 屬性이 國際的 關与를 前提하고 強大國 관계의 變動을 隨伴하기 때문에 이 方法의 追求는 統一 意慾에 反해 成功할 可望은 稀薄하며 도리어 그것은 分断을 深化 시킬 可能性만 커지는 것이나 北韓의 金日成은 이 方法으로 6.25 南侵을 恣行했고, 그러므로써 史上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同族 相殘의 慘劇만 招來했던 것이나 아직도 執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의 方法은 分断된 一方의 瓦解에 依한 他方에의 吸收 方法이다.

分断된 어느 一方이 政治的 經濟的 社会的으로 沒落하여 存立을 維持할수 없게 되거나 他方이 間接的 攻略에 依하여 相對方을 弱화시켜 瓦解로 誘導할 條件이 造成될 경우에 目的 達成이 可能한 것이다.

우리가 共產 閉鎖 社會에 消極的이긴 하나 自由의 바람을 불어 넣는 것도 하나의 方便이긴 하지만 앞으로 統一弘報의 當爲的인 重要性도 여기에 緣由한 것으로 看做할수 있다.

北韓의 金日成은 앞서의 제1의 方法에 사로 잡혀진 했으나 이 둘째의 方法을 꾸준히 併用 試圖하고 있다.

金日成은 이 方法의 行動的 遂行者로 널리 알려진 큐바의 체·게바라의 革命 投入論에 立脚하여, 對南韓 間接的 攻略을 目標로 東海岸의 三陟·蔚珍地域에 武装 계밀라를 大量으로 浸透 시킨바 있으며 越盟의 胡志明 戰術을 본따 南韓에 人革黨등 地下黨 組織을

피하려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게릴라戰이 成立하기 힘든 自然 地理的 条件과 地下党的 成長을 源泉 封鎖하는 國民들의 體驗的 对共 警覺心이 투철하여 모두 沮止되는 것이다.

세계의 方法은 平和的 分斷 解消의 方法이다.

分斷의 兩方이 相互間에 存在의 現實性을 認定 하면서 兩方이 共히 相對方을 直·間接 侵略에 依하여 顛覆할 意思를 拋棄하고 이를 制度化하는 方法이다. 即 어느 側도 自己의 主義 主張을 相對方에 強要하지 않을 것에 合意 함으로서 冷戰的 對峙 상태를 克服하는 것이다. 이 경우 分斷된 部分 國家간에는 平和 共存이 成立된다. 平和 共存을 成立 시키는 方法으로는 유엔에 同時 加入 하거나 相互間에 基本 關係를 設定하는 協約을 締結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体制와 理念은 틀려도 交流와 協力은 可能 하다는 立場을 取한다. 統一의 形式的 根拠는 잠정적으로 充足되지 않지만 民族의 同質化 회복이 可能해 지기 때문에 統一의 本質的 根拠를 充足 시킬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分斷의 平和的 解消 方法은 統一의 形成이 아닌 實質을 追求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어프로치에서는 一方이 他方을 合併한다는 傳統的 統一 概念을 止揚하고 体制와 理念이 다른 두개의 憲法 秩序가 分斷으로 因한 民族의 苦痛을 輕減 시키면서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해 가는 統一 條件의 改善 過程을 採択하게 된 것이다.

4. 平和 統一의 模索

70年代에 이르러 國際 情勢는 急變하여 多極化 時代로 접어들면서 終戰의 冷戰 狀態에서 共存 무드로 轉換되어 韓半島 情勢도 非現實的인 軍事的 征服 對象에서 보는 冷戰的 對峙 狀態만 持續 시킨다면 統一의 可能性이 源泉的으로 消滅될 것으로 評價, 統一을 위한 現實的 措置를 講究하게 이룬 것이다. 이 措置는 한 마디로 南北間에 冷戰的 對峙 狀態를 終結 시키고 肯定的 相互作用을 可能케 할 條件을 創造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에서 朴正熙 大統領이 提議한 平和統一 構想(8.15 宣言) 南北關係를 對決에서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킨 1971年 8月 12日 赤十字 會談 提案, 1972年 7月 7日 發表된 南北 共同聲明, 收復統一 憲法 構造를 平和統一 憲法 構造로 轉換시킨 1972年 10月 17日의 維新改革, 南北韓의 유엔 同時 加入 및 北韓을 傀儡에서 「不法이나 實際하는 政權」으로 認定하는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 外交 政策 宣言, 그리고 休戰協定の 効力を 維持시키는 가운데 서로 侵略하지 않고 干涉하지 않는 南北 關係의 展開에 合意할 것을 要求한 1974年 1月 18日의 南北 相互 不可侵 協定 提議는 모두 一貫性있게 南과 北이 冷戰의 굴레를 果敢히 벗어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立시킬 條件을 갖춰 보자는 것이다.

5. 우리의 平和統一政策

이와같은 段階的인 提議는 오늘의 情勢与件 속에서 戰爭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으로 分斷된 祖国을 統一하자는 것으로서 南北間의 極端的인 異質化 体制와 理念下에서는 이 길 밖에 다른 方法이 없기 때문이다.

相互 不信과 敵愾心이 가로 놓인 南北韓間에 먼저 不可侵 協定을 締結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이를 制度化 시킨 바탕 위에 民族的 信賴를 구축하고 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해서 相互 交流와 協力을 擴大 展開 함으로써 南北韓이 單一 民族으로서의 一體感을 形成해 나가 段階的 接近이 成功했을때 5千萬 同胞의 自由意思가 尊重되고 또 表現될 수 있는 南北韓 土着人口 比例에 依한 自由 總選舉를 實施하여 民族의 念願인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成就하자는 것이다.

이를 集約 体系化 해 보면

- ① 南北韓은 相互 不可侵 協定을 締結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 ②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 시킴으로써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을 이룩하여 南北韓間에 相互 門戶를 開放하고 信賴를 回復 시키며
- ③ 이를 바탕으로 하여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 比例에 依한 南北韓 自由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룩한다.

이것이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인데 反해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現實的인 平和 定着 統一 追求를 拒否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北韓은 아직도 平和定着을 받아 들일수 없는 自體의 弱點과 南朝鮮 革命이 可能할 것이라는 誤算을 하고 있어 우리 民族의 共同 利益 增進에 逆行하는 緊張 高潮 政策을 繼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統一 努力의 主題에 크나 큰 負擔이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金日成으로 하여금 그들이 30年 동안 追求해 온 「南朝鮮 革命」이 不可能 하고 또한 武力 侵略도 勝算이 없다는 것을 分明히 깨닫도록 国力 培養을 통한 國內的 安定을 顯示하는 길이 急先務이며 統一弘報의 意義와 緊要性은 바로 여기 에 있는 것이다.

統一弘報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國力과 直結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一部 政策 決定者들 가운데는 統一 弘報의 必要性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있지 못하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그것은 現在 民族의 興望을 안은 國家最高 目標 成就를 위한 統一弘報를 直接 담당해 내야 할 國土統一院의 한해 豫算이 우리나라 全體 豫算의 0.04%에 不過한데서도 쉽게 가려지는 것이다.

第二章 北韓의 對南宣傳方案과 內容

1. 對南宣傳의 基本目標

2. 對南宣傳의 戰術과 方向

가. 「平和統一論」과 「自主的平和統一」

나. 惡辣한 反政府 誹謗宣傳

다. 南北會談의 停滯 責任轉稼

3. 最近에 나타난 特徵的 動向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 100 号

第二章 北韓의 對南 宣傳方向

1. 對南宣傳의 基本目標

北韓의 對南宣傳은 韓半島에 共產統一 政權의 樹立을 窮極的인 目標로 設定하고 있는 對南戰略 遂行을 위한 先鋒的 手段이다.

이른바 北韓의 「南朝鮮 革命戰略」과 同一한 體系에서 組織되고 運營되고 있다.

北韓은 朝鮮 勞動黨 規約 前文에서 「朝鮮 勞動黨의 當面 目的은 公化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보장하여 全國的 範圍內에서 반제·반봉건적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修正 規定하고 勞動黨 第4次 大會에서 決定된 統一戰略은

- ① 南韓에서의 共產地下黨의 組織 및 擴大
- ② 地下黨을 核心으로 勞動者 農民 小市民 青年 學生 知識人 그리고 民族 資本家까지 包含한 廣範한 소위 「反美 救國 統一戰線」의 形成과 奪權 鬭爭
- ③ 南北의 統一戰線을 合同 시키는 形式으로 韓半島 全體를 共產主義로 統一하여 共產主義 社會의 實現에 當면 目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基本 立場으로 부터 出發한 것이 北韓의 對南宣傳의 基本 方向이다.

北韓의 「南朝鮮 革命 戰略」이란 外勢(유엔軍이나 美軍)를 追

放(撤収)하고 現 大韓民國 體制를 顛覆하여 이른바 「先進的 社會 體制」를 構築하는 것을 基本 課題로 南韓의 「勞動者·農民· 進歩的 大學生 一部 疎外된 인텔리層·都市의 小資産 階級 및 소 위 저들의 애국적 軍人」을 革命的 動力 對象으로 設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決定的 時機에 対応할 수 있게」對南 宣傳 活動을 展開하는 것이다. 이러므로서 「南朝鮮 革命力量을 不斷히 蓄積케 하고 아울러 「南朝鮮」國民의 反共思想 武裝을 解弛시켜 最終 目的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北韓의 對南 基本戰略은 對內的 組織指導에서도 그대로 轉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北韓의 全人民은 「革命的 全國的 勝利」 즉 赤化統一을 爲해 政治, 軍事, 經濟, 社會 등 모든 分野에서 分斷히 準備하여 持續的인 긴장상태를 繼續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南北對話가 始作할 무렵(前後) 共同聲明에 따른 北韓內部의 衝突과 긴장상태의 解弛를 最大限으로 막기 爲해 다음과 같은 內容을 勞動黨第 5 期 4 次會議에서 採択하였다.

「北半部에서 社會主義建設을 促進하면서 勞動者들은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키고 온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다그친다」라는 새삼스런 宣言이었다.

北韓을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立脚한 社會主義的, 愛國主義的 思想의 鼓吹를 통해 共產主義體制에 對한 未來에의 妄想을 注入하며 中共과 蘇聯의 규제세력에 便乘 그들의 對外力量을 繼續 확

보하면서 對內的으로는 國際的인 和平潮流에 北韓住民들이 몰들지 않도록 國際情勢와 國際社會相에 對한 認識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同時에 歪曲된 國際潮流의 注入등을 通해 긴장상태를 維持시키면서 共產主義에 對한 懷疑가 일어나지 않도록 未來指向的인 共產主義的 感想을 繼續 助長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南北對話에 따른 生活水準의 測定 基準이 되고있는 輕工業分野에서 심각한 劣勢가 露出됨에 따라 이에 對한 挽回가 急함을 切實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南北間의 生活水準의 차이는 初步的인 南北接觸 過程에서 現實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招來될지도 모르는 部分的 開放體制에 對한 準備作業을 서두르기 爲해서도 技術革新과 一般住民의 生活狀態에 反映될 經濟開發은 매우 重要한 것이다.

이에 따라 技術革新과 經濟計劃의 早期達成을 爲해 住民들의 生産 및 作業意慾을 높이고 敎養事業을 強化하고 있다.

이같은 目標에 따라 다음과 같은 宣傳主題를 내걸고 各種 敎養事業을 大大的으로 펴지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敎示：北韓은 統治理念의 敎理가 되는 「金日成敎示」를 貫철하기 爲한 北韓住民統治의 第一로 삼고 있다. 主要한 敎示로서는 한해의 一般的 目標와 方向을 設定하는 各 政策會見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밖에도 「現地敎示」라는 이름아래 對內心理戰의 重要한 比重을 찾아하고 있다.

노동당의 路線과 政策貫徹：實踐적인 面이나 党的 路線에서 「金日成의 敎示」가 行動目標로 提示되고 있다.

各種 行事에서 決定事項으로 採択되는 것은 그대로 그들의 党路線으로서 北韓住民들에게 集中的으로 宣傳化되고 있다.

反美, 反日 鬪爭煽動：反美, 反日 鬪爭은 北韓住民들에게 持續적인 긴장상태의 유지를 爲해 모든 部門에서 重點적으로 強調되고 있다. 北韓은 反美, 反日 煽動으로 各種集會를 열고 「決定」이라는 것을 採択하고 있는데 最近의 것을 보면 「南朝鮮人民들에게 보내는 呼訴文」等이 있다.

對內宣傳의 主題들은 對內輿論의 統合이라는 一次的인 目標를 두고 있지만 南北對話로 始作된 새 南北時代의 展開로 인한 對內 충격과를 最大限度로 막고 나아가서는 「共產主義革命의 全國的勝利」라고 對南基本戰略達成을 爲한 北韓의 體制와 準備를 더욱 強化하는 데에 終局的인 目標가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基本 目標에의 接近 方法으로 南韓社會의 여러 階層을 心理戰의 次元에서 分類하여 民族의 基本 課題인 統一 問題에 對한 그들 自身の 妥當性을 主張하면서 그들 體制의 優越性을 誇張하는 한편 大韓民國의 體制와 社會相에 對해 相對적으로 貶低하고 歪曲하고 非難하는 對南宣傳을 展開하는 것이다.

2. 对南宣传의 戰術과 方向

民族의 至上 課題인 統一問題에 對해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大韓民國의 正統적이고 妥當性있는 平和統一 路線을 얼버무리고 金日成 唯一 体制의 優越性을 내세우며 非現實的인 主張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즉 ① 自主的 平和統一論의 제시
② 外勢 배격과 緊張緩和를 口實으로 한 駐韓美軍의 撤収
③ 南北對話의 主導的 추진 停滯 責任 轉嫁
④ 南韓 指導層 中傷 비방
⑤ 反共体制 一掃
⑥ 北韓体制 強化
⑦ 統一 共產政權과 金日成 리더십의 當爲等

으로 要約되는 基本的인 政治的 主題를 갖고 이를 客觀的 狀況의 變動에 따라 그때 그때 戰術的인 修正을 加해 对南宣傳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가. 平和統一論과 自主的 平和統一

北韓이 南北分斷 이래 지금까지 一貫하여 对南宣傳에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論은 南韓의 共產革命 완수라는 对南 基本 戰略위에 恣行되고 있는 戰術的 「슬로건」으로써 7.4 南北共同聲明 이후 韓半島 情勢의 積極的인 發展에 따라 对南 宣傳에서 더욱 重點的으로 主題가 되고 있다. 金日成의 自

主的 平和統一 계시는 对内 唯一体制에의 挑戰勢力과 南北對話로 始作된 對話時代 展開로 因한 衝激派의 統合이라는 多目的 戰術的 口號의 口實을 다하고 있다.

南北으로 分斷된 韓半島를 統一함에는 政治·軍事的 緊張과 對立의 諸問題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北韓의 平和統一論의 前提는 美國을 비롯한 유엔의 政治·軍事的 介入을 排除하겠다는데 一次的인 目標을 두고 언커크 및 유엔軍司令部 해체, 그리고 駐韓美軍의 撤收를 段階적으로 推進하겠다는 對南戰略인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金日成이 赤化統一戰略의 宣傳的 口號인 平和統一論을 처음으로 學論한 것은 南北分斷 직후인 1946年이다. 金日成은 그때 平和統一 口號의 裏面에서 共產政權을 樹立 北韓에 定着시키고 南侵 準備를 偽裝했던 것이다.

즉 1950年 6月 金日成에 依한 祖國戰線 呼訴文의 內容을 보면

첫째, 平和的 統一에 必要한 모든 條件과 節次를 討議 決定하기 위하여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會議을 6月 15日 부터 17日 까지 海州市 또는 開城市에서 開催할것.

둘째, 南韓 政黨中 韓國民主黨과 民主國民黨의 2個 政黨은 協議會의 對象에서 除外할것.

셋째, 統一 選舉를 8月 5日 부터 8日까지의 사이에 實施할것 등이 있다.

이것은 6.25의 南侵 陰謀를 偽裝하기 위한 提言이 있음은 다

시 말할 必要조차 없다.

이렇듯 金日成의 平和統一 口號의 虛偽性은 6.25 南侵으로 實証이 들어났으며 유엔軍 및 中共軍이 參戰함으로써 外勢 介入을 自招한 結果를 불러 이르켰다.

萬事 主導權을 잡아야 지성이 풀리는 金日成이 平和統一論을 요란하게 떠들어 뉘때 우리는 額面대로 받아 들일수 없는 共產主義者들의 好惡한 敎訓을 익혀 알기 때문에 陰謀를 診斷할 수는 있다.

休戰 以後의 平和統一 口號는 戰禍復舊의 時間的 余裕를 얻기 위한 것으로 分析할수 있으며 60年代 이후 70年代까지는 金日成 唯一體制 強化와 軍備 擴張을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는 南北間의 「對話있는 對決」의 主導와 「南朝鮮 革命 戰略」을 위한 것으로 看破되는 것이다.

北韓의 平和統一論에서 가장 先決的이고 重點的인 策略은 駐韓 美軍의 撤収인 것이다. 그들은 美軍의 韓國駐屯이 韓半島의 統一問題 解決에 있어 最大의 障害 要因이요 駐韓 美軍만 撤収하면 自主的 平和統一은 즉각 成就될 수 있다는 主張을 積極化하고 있다.

金日成이 이 「自主的 平和統一」이란 戰術用語를 濫用하게 된것은 60年代 이후 蘇聯과 中共間의 紛爭의 틈바구니에서 活路를 찾기 위하여 「自主性」을 宣言하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自主」가 지진 낱말의 強點을 意識한 나머지 從前에 내세워 오던 「平和統一論」앞에 「自主的」이란 낱말을 連結하여 「自主的 平和統一」이

라고 戰略的으로 어필한 계탄엔 戰術的 用語를 創造하여 驅使함으로써 國內外的으로 同調 勢力을 成長시켜 보자는 意圖的 策略에서 새 내러오는 口號이다.

韓半島의 分断狀態는 美國·蘇聯·中共등 強大國을 主軸으로 하는 國際情勢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分断의 過程에서 부터 6.25 動亂으로 因하여 깊숙히 介入하게 되었고 休戰 이후엔 南北이 各 各 이들 關係國과 軍事的 防衛條約을 맺는등 複雜한 要因으로 因하여 分断狀態가 繼續되고 있으며 따라서 韓國의 統一問題도 이들 強大國의 影響圈을 벗어날수가 없는 現實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같은 複雜한 要因은 外面하고 韓國의 統一은 民族 內部的 問題라고 獨斷的인 생계를 쓰고 있다. 이 獨斷的인 생계는 韓半島를 兩斷한 美國과 蘇聯으로 하여금 우리의 再統一을 위한 國際的인 責任을 마다하는 歷史的인 過誤를 犯하고 있지만 그 裏面엔 이들 強大國들로 하여금 韓半島 統一問題를 둘러싼 國際關係에서 遊離시켜 一目標은 美國이지만-美國의 役割을 封鎖하자는 戰略的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美國의 役割을 封鎖하면서 國際적으로는 「自主的 平和統一」을 提唱함으로써 弱小國들로 된 이른바 第3勢力과 反西方 勢力의 同調를 얻어 駐韓 美軍의 撤収까지 凶謀해 보자는 心算이다. 이같은 北韓의 偽裝平和攻勢는 南韓에서는 說得力을 發揮하지 못한다. 南韓에는 적어도 6.25 動亂의 體驗으로 定着된 反共思想과 金日成體制의 欺瞞性을 익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南北對話 時代로 접어들면서 6.25 動亂을 겪지 않은

戰後世代와 急激히 頭角을 나타내기 시작한 汎世界的인 第3勢力과 反西方勢力엔 어느 程度 呼訴力을 지니는데 問題가 안될 수 없다. 그보다도 國際輿論을 造成하여 駐韓 美軍의 撤収를 誘導해 보자는 것이고, 駐韓 美軍이 撤収함으로써 韓國의 軍事的 취약점을 造成하여 南北間에 軍事的 均衡을 깨뜨려 優勢한 北韓의 軍事力을 背景으로 統一問題에 提起되는 모든 形態의 方法에 主導的으로 對處하겠다는 底意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이 提唱한 「自主的 平和統一」의 方案으로서는 平和統一論이 內包한 對南革命戰略 體系와 이데오로기의 本質은 隱蔽하고 그때 그때의 情勢에 따라 敏感性을 發揮하여 南北 協商論에서 부터 始作, 南北 總選舉論, 南北 聯邦論, 南北交匯論, 平和協定締結 및 軍備 縮小論등 새로운 思潮에 對處하는 方向에서 外形만 修正하여 羅列하고 있어 그 虛構性을 쉽게 看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臨機 雄弁的인 諸方案은 1973年6月23日 大韓民國의 朴正熙 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宣言」에 衝激을 받아 10時間후에 이른바 平和統一 五大綱領이란 緊急 變形의 새로운 탈을 쓰고 나타났다.

五大綱領이란

- ①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와 緊張緩和
- ② 多方面의 合作과 交流의 實現
- ③ 大民族會議 召集
- ④ 高麗 聯邦共和國 國号에 依한 聯邦制 實施

⑤ 高麗聯邦 共和國 國號로 유엔 單一加入이다.

이는 6.23 宣言으로 우리側의 새로운 平和統一 外交政策이 內外에서 크게 同調를 얻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이의 對抗策으로 提示한데 不遇한 것이다.

그것은 金日成의 이른바 平和統一 基本方案 즉 五大綱領이란 北韓이 韓國의 分斷이후 지금까지 強硬적인 宣傳口號로 되풀이 해온 平和統一의 諸方案들을 번호를 붙여 묶어놓은 것에 不遇한 것으로 모두 眞實性이 없고 偽裝된 術數임은 너무나 뻔하다.

虛構性을 具體的으로 指摘하면

첫째 非現實的이라는 것이다.

北韓의 主張은 實現 可能性이 없는 그야말로 非現實的인 內容만을 羅列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主張이 現實的인 것이 될려면 적어도 相對方이 理解하고 이를 受諾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一方 通行的인 「슬로전」만 되풀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6.25 南侵의 張本人인 金日成이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을 拋棄했다는 確證도 提示함이 없이 南韓에서 美軍을 撤収시키고 南北 韓 軍隊를 10萬 以下로 줄이자는 主張은 三尺童子라도 그 속셈을 알아 차릴수 있는 非現實的인 提案으로서 實現 可能性은 考慮에 넣지도 않은 虛構的인 것이라 할수 있다.

둘째 그들의 提案과 實際行動이 전혀 合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은 自主的 平和統一論을 부르 짓으면서도 武力 侵略行動을

中斷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욱 더 強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地下 땅굴을 構築. 南侵 機會를 劃策하고 있는 金日成은 公公然히 戰爭準備를 完遂했다고 서슴없이 公言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듯 非現實的인 金日成의 五大綱領이란 單只 政治的 宣傳目的을 위한 것과 그들의 好戰性을 對內外的으로 隱蔽. 偽裝하기 위한 것에 不過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나. 惡辣한 反政府 誹謗宣傳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平和統一論 못지 않게 大韓民國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分野에 걸쳐 모순을 誇張 歪曲 비방하는 惡辣한 宣傳을 重要한 意義를 갖고 展開하고 있다.

統一戰線 戰略에 큰 比重을 차지하는 惡辣한 對南 比방 宣傳은 主로 ①大韓民國의 指導者 中傷誹謗 ②政府施策. 言論論調非難 ③勤勞者들의 生活相을 比참하게 誇張선전 ④知識人 및 青年學生들의 反體制運動 煽動 ⑤ 10月維新과 6.23 宣言 比방 ⑥反政府的인 統一戰線 形成 促求等を 들 수 있다.

이같은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常套的인 韓國 社會相에 對한 歪曲 宣傳 戰略의 目標은 朴正熙 大統領의 指導像을 瓦解시키고 社會 底辺層을 刺戟하여 執權層에 對抗할 鬭爭을 煽動하고 韓國 社會 內部的 各 階層間에 利害 對立을 助長하여 反目을 造成함으로써 南韓內에 反政府 統一戰線을 形成해 보려는 心理戰的 策略이다.

그것은 所謂 金日成의 三段階 統一戰線 戰略에 根柢를 둔 것으로 韓半島를 赤化統一을 하기 위하여서는 現 大韓民國 體制를

崩壞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朴正熙 大統領이 障害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朴政權을 무너 뜨려야 하는데 北의 軍隊만으로는 力不足이라 南韓內의 大衆 즉 勞動者·農民·進歩的 青年 學生 심지어는 疎外된 인텔리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社會 底辺層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우선은 共產主義는 北에서만 한다. 南에선 民主主義하라고 추켜 세우며 同調勢力을 確保하여 이 勢力으로 하여금 反政府 暴挙運動까지 誘發케 하여 朴政權을 너머 뜨리는 것이 第1段階이고, 第2段階는 民衆 蜂起로 民主政府를 세웠으니까 右翼이던 左翼이던 모두 손을 잡아 聯合政府를 形成하게 하고 그런다음에 第3段階로 이들 손으로 세운 聯合政府를 顛覆하여 共產主義體制로 만든다는 것이다.

北韓은 이와같은 金日成의 欺瞞的인 統一戰線 戰略을 遂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南韓의 安保體制 弱화를 試圖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기 위하여 國論分裂 策動的 一選으로 反政府 宣傳 活動을 猛烈히 展開하는 것이다.

10月 維新을 反共·安保體制 強化로 보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이의 瓦解 내지 混亂을 助長하기 위하여 10月 維新에 對한 激烈한 非難 歪曲하는 對南宣傳에 總力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南北對話 膠着狀態 이후 부터는 公式的인 對南 放送 代身에 對內의 여러 放送과 刊行物·南北對話等의 채널 最近에 와서는 休戰線에 設置한 對南 擴声器등 모든 宣傳 媒體를 動

員해서 까지 過去보다 더 惡辣하게 南韓의 體制와 社會相에 對하여 重傷·비방·歪曲 宣傳을 強化하고 있는것이다. 심지어는 韓國 國內에 存在한다고 믿게하려고 開城에서 「統革黨의 목소리 放送」이란 黑色放送까지 質量面을 倍加시켜 나발을 불어대는 것이다.

다. 南北會談의 停滯·責任轉嫁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가장 重要한 對南宣傳의 武器는 偽裝한 平和攻勢임은 두말을 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一連의 南北會談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하나의 「南朝鮮 革命戰略」의 戰術로 應用하고 있을 뿐이다.

北韓은 1971年8月부터 豫備 接觸이 始作된 南北赤十字會談, 1972年7月4日 南北共同聲明, 같은해 11月의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등 一連의 南北會談이 소위 自主的 平和統一의 口號로 平和를 偽裝하는 金日成에 依해 大韓民國側이 받아들임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宣傳하고 있다. 그러한 北韓은 南北對話의 進行過程으로 살펴볼때 會談에서 提起된 諸案件에 對한 對內外 宣傳은 外面하고 會談의 進展을 警戒하면서 膠着시키기 위한 口實을 찾는 戰術만 恣行해 왔음을 看破할 수 있다. 勿論 北韓은 처음부터 南北對話를 赤化統一의 한 方便으로 삼아 왔다는 事實은 너무나 顯한 일이다. 그들은 南北對話의 初期부터 實行 不可能한 問題들을 先決 條件으로 내세워 對話의 進展을 露骨的으로 妨害했다.

分斷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人道主義的 요청인 離散家族 찾기를 다루는 赤十字 會議에서 北韓側은 議題 1項인 「南北으로 換

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의 實踐 方案과 節次에 關한 討議를 하면서 議題와는 距離가 먼 「法律的 社会的 條件 및 環境改善」의 先行을 내세워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의 폐기 등 內政 干涉的인 主張을 되풀이 하기만 해왔다. 南北調節委에서도 우리측이 「南北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解消하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促進시킨다」는 設立 趣旨에 立脚. 人道的 非政治的 分野 即 經濟. 社會. 文化部門의 交流부터 시작해서 漸次的으로 擴大해 나가자는 段階的인 交流方案을 提示한데 反해 北韓側은 軍備縮小, 兵力減縮, 軍裝備 導入 中止 美軍撤収, 平和協定の 締結等 軍事問題의 先決을 要求 이것을 먼저 解決하지 않는 限 다른 問題의 討議에 應할수 없다고 생트집을 잡으며 오히려 眞摯한 南北對話에 臨하려는 우리側의 立場과 姿勢를 始終 非難만 해대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非難行爲는 對話繼續의 必要性이 있을 경우에는 南北對話 推進에 對한 그들側 主張의 反證으로 利用하고 對話의 中斷을 劃策할 경우에는 會談 膠着의 責任 轉嫁 口實로 逆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우리側 當事者의 人身 攻撃과 같이 한 8.28 金英柱의 一方的 會談 破棄 聲明이후 膠着된 南北會談의 停滯 責任이 韓國側에 있는양 歪曲 中傷的인 宣傳을 國內外的으로 한층 強化하여 煽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번 유엔 총회에 비친 北韓의 備忘錄에도 잘 나타나 있

듯이 『6.25의 南侵은 美軍에 依해 저질러 진 것이며 南北會談의 膠着責任도 北韓은 南北사이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기 爲한 5個項目의 提案을 내놓았으나 이를 反對한 것이 南韓 當局이며 南北對話의 뒤에 숨어 戰爭準備와 軍事訓練에 狂奔한 것도 南韓이며 南北 共同聲明을 위반하면서 無數한 愛國者를 投獄 處刑하고 南北間의 幅넓은 政治協商會議를 反對한 것도 南韓이며 北韓의 誠意있고 忍耐性있는 努力에도 不拘하고 南韓의 表裏不同한 行動으로 말미암아 南과 北사이의 對話는 停滯狀態에 빠지고 祖國의 統一展望은 도로 흐려지게 되었다』고 터무니 없는 억지와 責任轉嫁를 國際社會에서 恣行하고 있는 狀態인 것이다.

3. 最近에 나타난 特徵的 動向

最近에 이르러 北韓의 對南宣傳 攻勢는 「유엔」總會를 意識한 소위 自主的 平和統一 方案의 主張을 되풀이 하는 一方 韓國政府가 다지는 安保 體制의 弱화를 試圖한 反政府鬭爭 煽動 積極化로 特徵지어 진다. 朴正熙 大統領의 6.23 宣言의 劃期的 內容이 國際社會에서 커다란 同調를 불러 일으키자 北韓은 당황한 나머지 그것은 「2개의 韓國으로 永久分斷을 企圖하는것」이라고 對抗宣傳하기에 狂奔하는 것이다. 北韓은 對外的으로는 南北韓이 東西獨의 경우와는 다르다면서 特히 非同盟中立勢力을 對象으로 同調 工作을 벌리는가 하면 對南宣傳에서는 6.23 宣言은 「反民族」的인 것으로까지 歪曲 規定하고 우리 指導層을 民族分裂主義라고 誹謗하면서

「民族의 分裂을 企圖하는 南韓 当局者와 南北對話도 하지 않겠다」
고 對話中斷을 劃策한다.

또 金日成은 「統一은 武力으로 이룩하겠다」고 極端的인 言動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가 繼統적으로 對決을 避하고 對話의 共通點 模索만을 採択하는 妥協案으로 終結되면서 南北對話 繼統에 對한 國內外로 부터의 새로운 壓力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對南宣傳의 極端的 論調는 抑揚을 더 높혀 熱을 加하고 있는 狀態인 것이다.

金日成은 勞動黨 第5期 10次 全員會議(1975年2月11日~17日 까지)에서 黨 創建 30周年을 맞는 오는 10月10日 까지

- ① 軍事力 強化 戰爭準備 完了
- ② 韓國政府 打倒·容共 政權樹立
- ③ 大民族 會議 構成 鬭爭
- ④ 軍需物資 擴充
- ⑤ 南韓革命 鬭爭 支援을 決議하고 다음과 같은 激烈한 口號를 採択했다.

△ 全民 全軍이 나라의 軍事力을 百方으로 強化하여 萬수들을 단애에 때려눕힐 萬般의 準備를 갖추자

△ 人民經濟 모든 部分에서 生産과 節約을 強化하여 必要한 物資 豫備를 充分히 마련하여 戰爭準備를 빈틈없이 갖추자

△ 南朝鮮 革命家들과 人民들은 大衆的 民主化 鬭爭의 불길을

높여 現政權을 쓸어 버리고 各界各層의 民主力量을 網羅하는 民主聯合政府를 세우자

- △ 南北對話는 統一을 위한 對話이므로 안팎의 分裂主義者들의 妨害 策動을 물리치고 南北의 各階 各層의 人民들과 各 政黨 社會團體를 망라하는 大民族會議를 열기 위하여 積極 鬪爭하자고 함으로써 「南朝鮮 革命」의 숨가쁜 決定的 時機造成에 全力 投球하는 것이다.

北韓은 또 北韓政權의 기관지 勞動新聞(1975年3月16日字)을 통해 『오늘 南北사이에는 任意的 時刻에 戰爭이 再發될수 있는 심상치 않은 事態가 빚어지고 있다』고 戰爭挑發의 警告와 이의 責任轉嫁까지 示唆하면서 『反共·謀略 騷動을 당장 中止하고 民族 反逆的인 6.23 宣言을 取消할것을 南朝鮮側에 強力히 要求한다』고 떠들면서 『膠着狀態에 빠진 南北對話를 正常化하고 對話를 通해 나라의 統一問題를 自主적으로 平和적으로 풀어 나가자면 이의의 다른 길이란 있을수 없다』고 和戰兩面戰術을 敢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最近의 一面 戰爭 一面 平和를 내세우는 奸巧한 對南戰略에 對応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對內 體制가 安定이 時急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平和統一 政策의 妥當性과 合理性이 內 外에 크게 浮刻시켜야 할것으로 이에 對處한 積極的인 統一弘報가 要請되는 것이다.

戰爭에는 戰爭 平和에는 平和로 対処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敵을 이기기 위하여선 敵을 잘 알아
야 한다」는 孫子兵法의 真理에 따라 北韓의 一方通行的인 猛烈
對南宣傳에 對應해서 우리의 統一弘報의 強力한 對抗宣傳策이 定立
되어야 하겠다.

第三章 統一弘報의 特殊性

1. 弘報의 一般的 概念

가. 弘報 宣傳

나. 統一弘報의 問題

2. 統一弘報의 特殊性

가. 統一弘報는 国力弘報

나. 統一弘報의 要員은 國民

다. 北韓의 對南宣傳의 逆利用

第 一 次 会 议 的 决 议

一 会 议 的 目 的 和 任 务

二 会 议 的 组 织 和 程 序

三 会 议 的 内 容 和 议 程

四 会 议 的 纪 律 和 风 气

五 会 议 的 效 果 和 意 义

六 会 议 的 总 结 和 展 望

七 会 议 的 附 录 和 备 注

第三章 統一 弘報의 特殊性

1. 弘報의 一般的 概念

가. 弘報—宣傳

弘報 (Publicity)란 告知·說得·蒙 등의 作用을 包含한 周知活動인데 때로 Public Information, Public Relation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行政 官庁에 施策이나 業務 등을 國民에게 公表, 理解를 求하려는 Public Information을 말하는 것으로 定義할 수 있다. 弘報란 用語는 世界第 2次大戰後에 登場한 것으로 2次大戰을 치루면서 對外宣傳의 莫強한 힘을 다시 한번 認識한 強大國들이 戰爭이 끝나자 宣傳이란 用語가 풍기는 부드럽지 못한 紐帶에서 벗어나 불려는데서 새로 使用하기 始作한 用語이다. 그렇기 때문에 弘報의 實行的 事業을 認識하려면 宣傳 (Propaganda)의 概念을 理解하면 된다.

宣傳의 概念을 摘示하면 言語的 혹은 象徴的 手段을 計劃的, 組織적으로 操作, 多數의 사람들의 潛在的 行動 (態度·信念·価値等)에 統制를 加하거나 變容함으로써 窮極적으로 사람들의 顯在的 行動을 一定한 豫期된 方向으로 誘導하는 것을 目的으로한 教化 (Indoctrination)를 위한 意圖的 行爲로서 宣傳은 宣傳主体 (Propagandist)와 宣傳客体 (Propagandee)로 大別되는데 宣傳主体에 따라 政治宣傳, 廣告로 나뉘지고 政治宣傳은 對內宣傳과 對外宣傳 (International Propaganda 또는 International

Political Propaganda) 으로 나눌 수 있다.

政治宣傳이란 輿論에 影響을 주어 輿論을 一定한 豫期된 方向으로 誘導하기 위한 組織된 企圖로 定義할 수 있다.

對內宣傳은 自國內에서의 國內의 大衆을 教育시키고 政府의 決定과 政策을 周知시켜 國民들로 하여금 政府가 意圖하고 있는 一定한 方向 即 國家 目標로 動員시키기 위한 方向으로 誘導하는 作爲的인 手段이 隨伴된다.

宣傳은 새로운 ทัศน에 對한 새로운 態度로 形成하는데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하며, 때로는 固定된 態度를 變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宣傳은 科學的이어야 한다. 또한 宣傳의 機能은 이미 情報가 存在하고 있는 態度에 對해서는 이를 補強하고 豊富하게 할 수 있지만 万若 宣傳對象物이 어떤 態度를 取하고 이 때문에 人格的 統一성을 維持하고 滿足하게 社會에 適應한다면 아무리 熟練된 科學的인 宣傳이라도 그 態度(宣傳對象)를 變更시킬 수 없다는 現狀이 있다. 예를 들면 한 世代 以上 동안 共產主義 教育을 받은 東歐의 사람들이 共產主義에 對한 信念을 아직 定立하지 못하고 있는 事實이 말해 주는 것이다.

人間은 自身の 態度를 堅持하기 위한 것만 接觸하고(Selective Exposure) 自己意見과 同一한 것만 知覺하고(Selective Perception) 自己의 態度와 一致되는 것만을 잊지 않고 오래 持統(Selective Retention)하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先入見을 補強시켜 줄 수 있는 情報를 찾으려 하며, 옳았다는 情報를 찾아 내어

어차피 自身이 取한 行動의 根柢를 삼기를 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共產主義 宣傳이 激烈하고 積極的이라 해도 人間 第1主義에 바탕을 둔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指向해 나가는 우리 弘報에 優越性이 있으며, 有利한 條件이 隨伴되는 것으로 그 展開 樣相 如何에 따라 成敗의 效果가 달려있다 하겠다.

나. 統一弘報의 問題點

前述한 바와 같이 弘報라 함은 쉽게 말해서 國家政府의 施策이나 業務를 一般 國民에게 理解시키기 위한 啓蒙·說得 및 告知 行爲인데 이를 遂行하기 위해서 弘報主體(政府나 公共 및 支援機關)와 弘報客體(弘報行爲의 對象 即 一般國民)가 있으며, 統一弘報란 우리 政府의 統一政策에 關한 弘報活動을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統一弘報의 窮極的인 目標은 大韓民國 政府의 民族의 與望에 副應한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成就이다. 民族의 與望인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成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하며, 그렇기 위하여서는 現實을 바탕으로한 國際趨勢에 積極的으로 対処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는 論理를 廣範圍한 國民階層에서 完璧하게 認識하도록 하는 것이 統一弘報의 窮極的인 目標인 同時에 方向이라 하겠다.

統一弘報의 效果的인 遂行을 위하여선 먼저 弘報內容의 妥當性과 眞摯性에 基調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6.23 宣言을 바탕으로한 平和統一로 接近하는 政府의 基本政策의 合理性 및 當爲에 對한 國民의 認識과 또 平和統一의 基盤 造成策으로 国力의 培養과 組織化의 必要性을 國民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弘報의 受容姿勢가 問題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趨勢는 政府와 같은 公共機關에 依한 弘報는 이제 世界的으로 蔓延한 反體制 運動等으로 그 權威가 땅에 墜落하여 公信用을 喪失해 가고 있어 眞正한 弘報主体인 政府나 公共機關은 弘報活動의 實効를 完全하고도 그리고 充分히 거둘 수 없는 者의 資格喪失者가 되어 가고 있는데 苦衷이 介在되고 따라서 統一弘報가 지닌 莫大한 責務의 問題가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思潮는 韓國뿐 아니라 世界的이다. 美國이나 日本에서도 크게 社會問題化되고 있고 政府가 지닌 苦悶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統一弘報에 있어 主管部인 文公部를 비롯 國土統一院, 國防部, 文敎部 및 中央情報部 等 行政官庁이나 反共聯盟, 弘報協會 等 關係機關에서의 新聞, 放送 등 매스 미디어 活用, 弘報 冊字配布, 취약지구 巡廻講演, 各種 記念行事に의 啓蒙活動, 敎育 訓練, 反共有功者 表彰 等 弘報事業을 벌리고 있으나 많은 弘報對象 卽 一般國民은 勿論 大學生, 知識層까지도 南北會談이 統一問題와 어떻게 連關되는지, 그리고 赤十字 會談의 잇슈 (Issue) 가 무엇이며, 北韓의 實相이나 그들의 對南戰略은 무엇을 말하는지, 나아가서 우리 政府의 平和統一 政策의 現實的 妥當性은 어떻게 理解되는지 아직도 遼遠한 現狀인 것이다.

南北接觸이 始作되면서 盛급한 樂觀論에 期待했던 國民들은 벌써 倦怠心理에서 우리의 統一問題에 對해선 關心外의 事案으로 잊혀 놓는 狀況까지 이른다.

이같은 現狀은 지금까지의 弘報活動이 公式的이고 形式的으로 展開했으며, 難解하고 原則論的인 解說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한때도 基因이 있다 하겠다. 또한 우리의 지금까지의 統一弘報의 內容은 冷戰 體制의 論理위에 根拠를 둔 것으로 伸縮性이 欠如되어 있었다.

우선 統一政策이 確固하게 確立되어 있지 않았으며, 時代的인 흐름에도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統一政策은 統一弘報를 效果的으로 展開, 隨行할 수 있는 基調가 될 수 없어 不可避했다는 情狀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北進統一의 統韓政策 當時부터 내세웠던 「유엔監視下의 南北 總選舉」가 아직까지 有効한 것인지, 아니면 6.23 宣言에 依한 새로운 統一政策의 提示로 自動消滅된 것인지, 이런 問題조차 많은 國民은 알지 못하고 있는 狀態다. 또 6.23 宣言은 결코 北韓을 國家로 認定한 것이 아니라는 事實을 分明히 하고 있긴 하지만 現實的으로는 6.23 宣言이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認한 것이 아니냐는 疑問에 對한 說得力 있는 解明도 當面한 緊急한 問題이다.

따라서 統一政策의 問題點으로 觀念的이고 抽象的이며, 難解했던 內容에서 脫皮하고 弘報事案을 正確히 調査 把握하여 時代의 흐름에 따라 伸縮性있게 說得力있는 計劃을 세워 누구나 理解할 수 있도록

특 適切한 水準으로 內容을 다듬어 傳達함으로써 統一弘報의 當爲的 方向으로 接近해 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統一弘報의 特殊性

가) 統一弘報는 国力弘報

韓國은 現在 對話있는 對決, 을 벌이면서 對內的으로는 經濟建設과 함께 政治的 安定을 위하여서 끊임없는 努力을 傾注하는 한편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 體制가 北韓의 共產主義 體制보다 優越하고 緊張緩和, 平和共存에 寄與하고 있음을 널리 弘報해야 하는 立場에 있다. 그러기에 統一弘報는 바로 国力弘報이며, 따라서 總力弘報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政府의 各 部處別 諸般政策도 統一弘報의 側面에서 다시 再整理하여 統一로 向하는, 長期的이고 綜合的인 政策으로 이를 解釈弘報하는 弘報內容의 補充이 必要한 것이다.

나) 統一弘報의 要員은 國民

우리 國民은 누구나 統一을 熱望한다. 5千年 동안이란 긴 歷史를 形成하면서 單一民族, 單一國家로 살아 온 韓國民族은 지금 까지 外勢에 依해 困辱을 當했으면 當했지 한번도 남의 나라를 侵犯해 보지 못한 白衣民族이다. 오늘의 南北分斷의 悲劇의 現狀도 우리 民族의 意思와는 아무런 相關도 없이 強大國들의 終戰의 產物로 感受해야 했고, 따라서 우리 民族 아니고는 實感하지 못할

苦痛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民族은 老人이나 少年, 壯年이나 幼年 할것없이 누구나 祖國의 平和的인 統一을 熱望하며, 또 切實한 時代的 要請으로 意慾이 充滿되어 있는 것이다. 統一弘報는 이러한 國民的 熱望에 副應해서 展開해야 하고, 또 우리의 平和統一의 意志에 感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正確한 現實을 把握케 하여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이 가장 合理的이고 實現性 있는 統一方案이라는 것을 國民들로 하여금 理解하고 共鳴을 얻게 함으로써 統一弘報 要員으로 昇華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全國民이 모두 統一弘報의 要員化가 되어야 한다.

다) 北韓의 對南宣傳의 逆利用

北韓의 對南宣傳의 虛構性을 逆利用 하는 것도 統一弘報를 遂行해 나가는데 不可分의 作為이다.

北韓의 對南宣傳은 거의 모두가 歪曲과 억지인 것은 누구나 쉽게 無比判的으로도 認知하는 것이나 지금껏 束手無策인양 傍觀狀態였다. 北韓 共產主義의 實體와 그들이 內外에서 벌이고 있는 行態를 把握 分析하여 끊임없이 나발되는 對南宣傳을 逆利用하여 우리 弘報에 活用하는 것은 보다 더 效果的인 方法이다.

政府는 이러한 問題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北韓 共產主義에 對한 對內弘報에서 너무나 타부視 해 온 政策을 再考하여 어느 一定한 線까지 設定해 놓고 國民들로 하여금 北韓의 異質化 現狀의 實體와 理念上的 諸 問題를 比較的 詔詳히 비쳐 줄 必要가 있다.

지금까지 하얏은 事實까지 "對外秘"란 疎外線을 그어 北韓의 獨
制體制와 南侵野慾만을 暴露 宣傳하는데 重點을 두어 政治外交軍事
分野에서만 一部를 批判對象으로 偏重했던 것을 經濟·社會·文化
等 모든 分野에 까지 擴大해서 現在의 行態를 實相 그대로 紹介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國民 스스로가 北韓의 對南宣
傳의 表裏態를 正確히 깨닫게 하고 그 虛構性을 實感 認識하고
批判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統一弘報의 보다 큰 結實을 促求하
여야 하는 것이다.

第四章 國內統一弘報 指針

1. 統一弘報의 基本目標

- 가. 우리 統一政策의 合理性
- 나.北韓의 對南宣傳의 虛構性
- 다. 우리 體制의 優位性

2. 統一弘報의 效果的 展開方案

- 가. 弘報效果의 諸方法과 指針
- 나. 매스컴의 效果的 活用
 - ① 미디어 從事者의 統一意識 提高
 - ② 弘報媒体에 對한 公信力
- 다. 教育을 통한 底辺擴大
- 라. 弘報事業과 信念
- 마. 「統一弘報戰略委」設置

第四章 國內統一弘報 指針

1. 統一弘報의 基本目標

民族의 輿望인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成就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現實을 바탕으로한 國際趨勢에 積極的으로 対処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는 論理를 広範圍한 國民階層에서 完壁하게 認識하고 共鳴하도록 하는 것이 統一弘報의 基本目標이다.

따라서 統一弘報는 6.23 宣言을 基本으로 平和統一로 接近하는 政府의 基本政策의 合理性 및 當爲에 對한 弘報와 또 平和統一의 基盤 造成策으로 國力의 培養과 組織化의 必然性을 弘報하는데 重點을 두어야 한다. 6.23 宣言의 核心인 平和統一 政策은 결코 客觀的 與件變化에 對한 單純한 順應이 아니라 우리의 自主的 判斷에 의한 能動的 環境適應으로서 提示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우리 統一政策의 合理性

分斷된 祖國을 再統一 시키는 問題는 우리에게 至上의 民族的인 課業이다. 그러나 統一은 우리의 感傷的 意欲만으로는 成就하기 어렵다는 것이 韓半島를 둘러싼 오늘의 國內外 情勢이다. 統一問題는 非單 南北韓만의 問題일뿐 아니라 分斷의 生成要因이 나 韓半島가 지니고 있는 特殊한 地政學的 位置때문에 동시에 國際的 문제인 것이다. 韓半島는 極東地域에서의 地政學的 與件때

문에 어쩔 수 없이 美·中·蘇 등 周辺 強大國들이 形成하는 共通利害圈의 中心地에 位置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美國은 韓國의 盟邦 또는 友邦으로 그리고 中·蘇는 北韓의 背後勢力으로 各其 特殊한 關係를 構築하고 있다. 이같은 周辺 情勢속에서 統一問題를 包含한 韓半島問題의 해결은 그 解決 方式이 어떠한 것이던간에 우선 當事者인 南北韓 双方의 同意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와함께 주변 國際勢力의 成熟에 依한 뒷받침이 隨伴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政府의 統一政策은 南·北韓의 實存的인 狀況과 國際的 條件을 考慮한 現實的인 統一 方案을 追求하는 것으로 平和의 定着을 그 第1段階로 잡고있는 것이다.

우리의 統一政策은 朴正熙 大統領의 8.15 宣言에서 새기름이 잡혀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 그리고 南北韓 不可侵協定 提議로 具體化되었다. (第1章 「우리의 統一政策」 參照) 즉 大韓民國이 追求하는 平和統一 政策은 統一에 앞서 韓半島에 安定된 平和가 制度的으로 定着되는 것을 大前提로 하고 있으며 對內外的으로 絶對的인 支持를 받고있다. 朴大統領은 韓半島 平和의 定着을 위해서는 南北韓이 서로 侵略을 하지말고 內政干涉을 하지않을 것을 提議했다. 過渡的, 暫定的인 조처로 우선 相異한 南北韓體制의 平和共存을 絶對視하는 우리의 이같은 政策은 지극히 當然한 構想이다. 왜냐하면 平和가 拒否되고 否定되는 極限에서의 「平和統一」이란 語不成說이며 無責任한 宣傳, 煽動에 不過한 것이다. 이것은 南北間의 體制와 思想, 理念을 超越해서 서로 誤解와 不信을

除去하고 緊張을 緩和하며 相互理解와 信賴를 增進할 수 있는 가장 着實하고도 確實한 方法인 것이다.

우리의 統一政策은 이같은 두 過程을 積極적으로 推進하므로써 「平和統一」이라는 民族的 目標에 이르는 길을 다지고 擴張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統一政策의 合理性과 當爲는 以上과 같은 政策的 体系와 環境의 現實性 그리고 北韓의 統一戰略의 虛構性만 接하게 되면 自然히 導出되는 것이다.

나) 北韓의 對南宣傳의 虛構性

北韓의 對南宣傳은 이른바 革命의 全國的 勝利 즉 赤化統一을 目標로한 基本 戰略에 따른 技術的 단계의 하나로 對南 心理戰의 次元에서 展開되는 것임은 다 아는 事實이다. 따라서 對南 宣傳은 共產主義 体制의 誇張과 우리 体制에 對한 相對的인 中傷, 誹謗을 통한 反政府 宣傳, 煽動이다.

北韓의 對南宣傳은 7.4 南北 共同聲明지후에는 南北對話가 그들의 主導로 進行된다는 것과 아울러 對話에서 擡起된 그들의 立場과 提案의 妥當性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 統一戰略의 當爲性등을 合理化하는데 置重했었다. 그러나 金英柱의 8.28 南北對話 一方的 破綻宣言 이후 부터는 우리 体制에 對한 內政 干涉的이며 露骨的인 中傷과 誹謗을 展開하고 極限的이고도 挑發的인 用語까지 動員하므로써 南韓內部에서의 反体制 革命을 위한 起爆的作用을 해보려고 血眼이 되고 있다. 이같은 基本方向과 論調로 날로 熾烈化하고

있는 對南宣傳을 분석하고 오히려 逆機能的 效果를 거두려면 對南
宣傳의 虛點을 찌르고 그것을 逆利用해야한다. 北韓 對南宣傳의 決
定的인 虛點은 그 內容의 虛構性에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우물안 개구리」式의 誇大 忘想的이며 自己 本位式 思考方式은
論理의 非現實性과 狀況에 對한 判斷착오를 誘發하고 있다. 南韓
에서의 純粹한 學生運動이나 社會의 断面에 對한 共產主義式 評價
를 볼때 그들의 그같은 思考方式이 얼마나 엉뚱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의 思考方式에 依해 組織되고 展開되고 있는 對南
宣傳이 說得力은 커녕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은 지극히 자
연스런 現狀이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의 常識圈밖에서 맴돈다고
해서 그대로 傍觀만 해 둘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共產主義
者들의 宣傳, 煽動의 基本戰術이 無條件的인 反復을 통해 마침내
意識的이건 無意識的이건 간에 하나의 事實로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手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6.25戰後 世代가 反共
의 論理를 要求하고 있는 오늘의 現實은 더욱 더 積極的인 對應
을 必要로 하게한다.

對南宣傳에 對한 積極的인 對應은 결국 그 內容의 虛構性 分析이다.

對南宣傳의 虛構性을 南北間의 基本이슈가 되고있는 統一政策과
體制 論爭의 面에서 살펴보면 北韓은 統一問題를 南北雙方 當局間
의 協商과 妥協에 依해 解決될 問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基本 立場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統一은 共產化 實現을 追求하는 全韓半島에 걸

천 赤化革命의 한 부분이며 統一은 오로지 階級鬭爭史觀에 立脚한 革命에 依해서만 成就될수있다는 것이다. 分斷이후 北韓은 3百餘회에 걸쳐 平和統一 方案이라는 것을 내놓고 對內外 宣傳에 狂奔했다. 그러나 그들의 平和統一 方案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條件附 平和統一 方案이며 偽裝的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南韓에서 暴力 革命에 依한 現 政權 打倒를 先行 條件으로 하고있다.

한편 體制 論爭에서 北韓이 對南宣傳에 내세우고 있는 基本的인 立場은 그들 體制가 어떤 體制보다도 優位이며 따라서 우리 體制의 必然的인 沒落이라는 것이다. 北韓은 그들의 共產主義 體制를 「世界에서 가장 先進的인 制度이며 北韓은 地上樂園」이라고 宣傳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宣傳의 虛構性을 어렵게 反証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최근 北送 日本女人들로 부터 日本에 있는 그들의 家族들에게 보내오는 便紙내용만으로도 充分하게 反証되고 있는것이다. 人情이 그렇고 生活 必需品이 아쉽고..... 地上樂園이 아니라 마치 監獄같은 自由가 閉鎖된 社會라식 便紙도 自由로써 볼일수 없어 秘密히 미리 定해둔 暗號로 消息을 伝해야하는 그런 慘担한 現實을 뻔뻔스럽게도 自家瞻着, 體制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體制에 對한 허황된 宣傳을 接할때 賊反荷狀을 實感케하는 것이다.

다) 우리 體制의 優位性

우리 體制의 本質은 한마디로 「自由」이다. 自由는 우리의

大義名分이며 우리가 사랑하고 守護하려는 基本価値이며 또한 우리의 最大武器이다.

우리는 自由社會의 自由人이다. 우리가 生命을 걸고 共產主義와 對決하는 根本 理由는 自由를 사랑하고 自由社會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體制의 優位性은 「自由」로 부터 始作된다. 自由에 대한 信念, 이것이 우리의 不動不變의 基本 理念이 되어야 한다. 北韓 共產主義 體制가 우리 體制와 本質적으로 다른것은 바로 「自由」를 그들 體制의 最大 敵으로 삼고 있다는데 있다.

北韓 共產主義 集團의 重要한 赤化野慾을 紛碎하고 그들을 앞지르며 終局的으로 그들 體制의 瓦解를 圖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體制가 그들 體制보다 優越하고 따라서 優位の 信念을 國民 各層層에 確立하는 것이 가장 先行的인 條件이라 하겠다. 이는 또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統一戰線 策略의 一環으로 國內의 反體制운동 運動에 血眼이 되고 있는 오늘의 時点에서는 더욱 더 時急히 그리고 보다더 徹底히 강구되어야 할 課題가 아닐수 없다.

우리 體制가 北傀의 自由가 抹殺된 個人崇拜 및 全体主義 體制보다 優位라는것을 周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北韓 體制의 本質이 分析, 把握된 土台위에 우리 體制의 本質과 當爲性이 論理的으로 整理되어 國民 各層의 意識 構造속에 굳게 定着되어 있어야 하겠다.

특히 6.25를 겪지않은 새 世代가 漸次 社會의 中堅으로 들어 서고 있는 오늘의 時代에서는 이들이 意圖하는 反共, 즉 旧世代

의 體驗的, 感情的 反共과는 다소 次元을 달리하고 새로운 思潮을 念頭에 두지 않고는 統一弘報의 滿足할만한 成果를 期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体制의 核心은 人間 第1主義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自由를 本質로 하고 있다. 自由는 두가지 뜻을 가진다. 하나는 消極的 意味이고 하나는 積極的 意味이다.

消極的 自由란 外部에서 拘束, 干涉, 束縛 없는 狀態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活動을 하려고 할때 어떠한 束縛도 받지 않는것을 自由라고 하지만 그것은 自由의 一面에 不過하다.

積極的 自由란 自律이며 自己 決定이다. 내가 내 自身에게 命令하고 그命令에 스스로 服從하는 狀態, 즉 自己가 自己를 規律하는 狀態를 말한다. 自律이야말로 自由의 核이다.

自由의 意味와 價置가 確固하게 大衆속에 뿌리 박히면 우리 体制의 骨格인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이 北韓 共產主義 集團의 教條的이며 劃一的인 体制에 비해 相對的으로 優位性이 抽出된다.

왜냐하면 우리 体制의 모든 分野가 自由를 根幹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治에서의 自由 民主主義 制度가 그렇고 自由 經濟体制가 그러하다.

自由 經濟体制은 自由의 基本原理인 「自由의 實質化」가 本質을 이루고 있다. 즉 生活權의 自由를 말하는 것으로 財産의 私有權, 企業의 自由 그리고 經濟的 自己 責任등의 3原則이 骨幹을 이루고 있는 現代 資本主義 体制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北韓 共產

主義者들이 住民을 한낱 全体主義 經濟 体制의 附屬物로 보는 思考와 根本적으로 對立되는 人間 第1主義를 뜻하는 것이다. 社會 制度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모든것이 抑壓 統制되고 組織되고 閉鎖된 北韓社會와 우리의 自由스러운 開放社會를 比較 評價하기란 오히려 속스러운 程度일 것이다.

2. 統一弘報의 效果的 展開方案

가) 弘報 效果의 諸方法과 指針

弘報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선 勿論 一貫性있는 弘報 政策의 發端에 信憑性(眞實性) 있는 內容이어야 하며 弘報對象에 따라 理解力 水準에 適當하고 明確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弘報의 過程을 거쳐야 하는데 그 過程은 ① 事實 調査단계 ② 計劃단계 ③ 傳達관계 ④ 評價단계이다. 이것이 組織化되어 弘報 資料의 生産과 供給에 있어서 좀더 效率的인 一元化 体制가 確立되어야 하고 量도 더욱 增大되어야 한다.

弘報에 多様な 方式의 技術이 利用된다. 대체로 弘報의 效果를 위한 方法으로 다음 5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어떤 이슈(ISSUE)에 대하여 좋은面만을 伝하느냐 아니면 否定的인 側面까지 言及하는것이 좋은가 하는것이다. 이점에 관해 美國防省의 一連의 실험조사 結果가 나왔는데, 이 調査結果에 依하면 一般的으로 兩面 모두의 提示方法은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에게

는 크게 어필 (appeal) 하는 反面, 教育水準이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對해서는 一面的인 提示方法이 보다 效果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이問題에 好意的인 傾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一面的인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效果的이고 補強의 기술로 利用될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宣傳 및 弘報活動은 敵對的인 逆宣傳으로 부터 保護해야 할 必要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對備하기 위해서라면 兩面性을 지닌 內容을 傳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라고 밝혀졌다.

둘째는 弘報의 意圖하는바 結論을 明確하게 밝히는 경우와 弘報 對象者로 하여금 結論을 꼬집어내게 하는 경우 어느쪽이 보다 效果的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 問題에 對한 實驗調査 및 檢證 結果는 結論을 明確하게 밝혀주는 것이, 暗示만하고 弘報對象者에게 結論을 알기는 경우보다 훨씬 效果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效果的인 弘報內容은 意圖하는 바 結論을 明確하게 밝혀두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人間은 思考의 勞動을 피하려 하는 性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세번째로 威脅的인 弘報內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威脅의 程度가 높아질수록 그 效果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實事=實際의 政治的 行動이 敵對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弘報內容에 있어서만은 威脅的인 要素를 除去하고 그 行動을 理解시키는 方向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는 같은 內容을 자주 反復하는 것과 變化시켜 提示하는 것의

어느쪽이 더 效果的인가 하는 점이 實際的인 問題로 登場할때 一般的으로 反復 그 自体가 說得을 成功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앵무새처럼 反復하는 宣傳을 받아 들이는데도 限度가 있는法으로 反復을 하되 그中 變貌시키지 않고 多様하게 꾸며서 反復할때 즉 多様な 戰術로 反復할때 더 本效果를 나타낸다. 즉 弘報의 內容을 끊임없이 反復하되 여러가지 側面에서 解析하여 여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多様하게 변모시켜 提示할때 最大의 效果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反復은 결국 접촉을 極大化시키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繼統的인 弘報資料의 配布나 傳達이 要請되고 아울러 一貫性있는 弘報政策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弘報內容이 좋은 效果를 얻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欲求를 開發시키는것 보다는 既存의 欲求를 滿足시킬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商品을 販賣하게 될때, 消費者의 새로운 消費欲求를 刺戟시키는것 보다는 既存의 欲求에 연결시키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라는 것은 널리알려진 사실이고 또 實務에 자주 利用되는 方法中의 하나다.

이 외에도 順序, 強調, 組織等 效果的인 方法이 실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斷定的으로 提示하기는 어렵다.

說得的인 內容은 어떤 位置(順序)에 놓아야 좋을 것인가

主張을 強하게 始作해서 弱하게 혹은 弱하게 始作해서 強하게

할 것인가

提示의 形態는 한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할 것인가, 對話를 통해서 할 것인가

內容의 構成을 論理的으로 잘 組織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엉성하게 組織하는 것이 좋은가 등의 問題인데, 여기서는 이 問題에 앞서 弘報指針 10 個項을 列举 보다 效果的인 弘報活動의 展開에 圖謀코자 한다.

- ① 弘報內容이 眞實일것
- ② 輿論의 支持를 받을것
- ③ 弘報를 宣傳으로 끝내지 말고 行動으로 뒷받침 할것
- ④ 強力하고 創造的인 리더 십을 確立할것
- ⑤ 效果的이고 統一的인 弘報 組織을 갖출것
- ⑥ 國家政策의 一貫性이 弘報內容에 담겨질것
- ⑦ 優秀한 弘報 要員을 養成할것
- ⑧ 政府 各機關의 協助가 이루어 질것
- ⑨ 戰略的 弘報와 戰術的 弘報의 連關性
- ⑩ 綿密한 目標 分析과 效果의 評價

나) 매스컴의 效率의 活用

統一弘報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매스컴 (Mass Communication) 의 手段을 最大限度로 活用해야 함은 두말을 要치 않는다. 미디어 (Media) 의 發達은 人間의 커뮤니케이션 行動에 거의 革命的인 變化까지 가져왔다. 實際로 매스 미디어

(Mass Media.)가 大量宣傳의 武器로 活用되었고 거의 모든 宣傳은 매스 미디어 없이는 不可能하게 되었다. 新聞, 팜프렛, 傳單, 書籍 등의 印刷 媒體와 라디오, TV 등의 電波 미디어 그리고 映畫, 슬라이드, 寫真 등의 映像 미디어가 宣傳手段으로 活用되고 其外에도 公聽會, 講演會, 展示會, 弘報車輛 利用, 施設利用 등도 勳員된다.

① 미디어 從事者의 統一意識 提高

統一弘報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重要性은 따로 말할 必要도 없다.

從來의 代表的인 미디어였던 新聞에 이어 라디오, TV 映畫 등 多元的인 電波 미디어의 併存으로 매스컴의 比重은 날로 增大해 가고 있다.

이렇듯 弘報에서 차지하는 莫大한 比重의 미디어를 活用함에 있어 미디어의 企業性, 商品性과 統一弘報間의 相衡的인 關係를 어떻게 克服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新聞 미디어나 電波 미디어가 統一弘報를 다루는 比重이 質畵面에서 꽤 낮은 것으로 分析되었는데 특히 量的인 比重이 낮은 原因으로는 미디어의 商品性과 企業性的의 關係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硬直性을 지닌 反共物이나 難解한 高次元的인 原則論 解說物 보다는 柔軟性을 가진 娛樂物을 讀者나 視聽者들이 더 좋아 하기 때문에 自然的으로 統一弘報 內容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論理인 것이다. 統一弘報性을 지닌 重要的 記事가 때로는

海外토픽이나 우리 생활과는 別로 關聯이 없는 外信 記事보다 대수롭지 않게 取扱되는 例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 오고 있다.

이러한 問題들은 좀더 政策的 次元에서 調整되어야 할 時急한 課題라고 할수 있다.

또한 미디어 從事者들의 安保·統一問題等에 對한 意識이 문제다. 統一弘報의 性格을 띤 記事를 좀더 國家的 次元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다른 一般記事와 同一한 尺度 基準에 따라 評價하여 取扱하는데 問題가 있다. 또한 미디어間의 不必要한 競爭이나 猜忌에서 統一安保 問題가 輕視되는 傾向이 있다.

當然히 톱으로 取扱되어야 할 記事를 朝刊이 크게 取扱했으니가 夕刊은 적게 다룬다던가 같은 朝刊이나 夕刊끼리도 먼저 取扱한 記事이기 때문에 뒤따라 가면 體面이 손상된다고 해서 揭載 안하거나 적게 取扱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各紙가 저마다의 讀者를 따로 갖고 있다는 점을 소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統一弘報에 큰 영향을 미치는 記事를 一般記事와 같은 次元에서 取扱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弘報性을 띤 記事는 一定量의 揭載를 政策的으로 強力하게 권장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미디어에 對해 어떤 義務를 과한다는 것은 勿論 自由라는 側面에서 볼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企業性·商品性의 名分下에선 國家的인 次元의 勸獎을 外面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 從事者들에 對한 安保教育도 可及的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安保教育이란 本來的인 意味의 講義式 教育이 아니라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北韓實情을 소개하는 映畵나 資料를 隨時로 보여 준다던가 하여 우리의 統一問題에 對한 意識 提高에 寄與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 製作에 重要한 位置에 있는 編輯者들에게 統一問題에 對한 用役 活用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하여 統一弘報의 重要性을 共通的으로 느끼고 스스로 參與 意識과 意慾을 提高함으로써 보다 큰 效果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② 弘報 媒体에 對한 公信力

弘報內容이나 方法이 아무리 實感있고 論理가 整然하다 하더라도 그 眞實性을 疑心받게 된다면 弘報效果는 期待할 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逆效果의 機能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弘報內容과 함께 弘報媒体까지도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國民들은 弘報內容과는 距離가 먼 流言蜚語 같은 것에 귀를 기울리게 된다.

新聞이나 放送등의 매스 미디어가 차지하는 弘報比重은 絶對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絶對的인 比重과 큰 影響을 갖는 매스 미디어도 그 自体가 不信을 받는다면 弘報媒体로서의 機能을 喪失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極히 少數이긴 하지만 앞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南北對話의 틈을 타 休戰線의 地下를 뚫고 南侵할 땅굴을 판 어마어마한 事件도 写真으로 撮影 報道한 新聞

이나 T.V 放送도 믿으려 하지 않았었다. 포드 美国 大統領 訪韓을 앞두고 政治的인 操作이라고 애써 外面에 버리는 그런 式이다.

南北對話조차 全的으로 国内政治의 必要性에 依해 始作한 것이지 眞情으로 統韓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極端的인 思考를 하는 疎外人士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不信風潮는 우리나라에 만 局限된 風潮는 결코 아니긴 하다. 앞서도 指摘한 바 있지만 美国이나 日本의 이웃 나라의 境遇에서도 미디어에 對한 不信問題가 심심치 않게 社会問題로 登場하는 것이다. 그것은 極히 些少한 事實에서부터 軋트는 것이다.

北韓의 突然한 挑發을 받았을 때 政府当局의 猝然치 않은 解明이라던가 平素 自己 周辺에서 일어나는 事件 뉴스들을 自己집에서 보고 듣는 新聞이나 放送에서 蒐集할 수 없고 오히려 外國의 미디어나 다른 루투로 알 수 있었다고 할 때 國內의 弘報媒体에 對한 失望과 不信感은 莫大하며, 固着되어 지는 것이다. 弘報媒体에 對한 不信風潮가 팽배해 질 때 統一弘報 內容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明若觀火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弘報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公信力이 重要하며, 信憑性 있는 眞實한 內容追求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教育을 통한 底辺擴大

統一弘報에 있어서 教育이 차지하는 比重은 實로 重大하다 하겠다. 자라나는 世代의 統一觀은 家庭과 社会의 生活 領域과

直接的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形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對한 統一觀 指導는 社會 底辺에 폭 넓게 적용되는 統一弘報가
된다.

學校教育의 側面에서 統一弘報를 分析해 보면 지금까지는 뿌리깊
은 體驗的 反共 思想에 根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一定한 角度에서 北韓 共產主義 集團을 透視하고 이를
一定한 樣式으로 注入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共產黨의 虛偽 宣傳과 煽動에 속지 말라는 식의 觀
念的이고 禁忌的이고 口號的인 內容이 있다. 戰爭 經驗이 없고
共產徒輩들의 惡辣性을 直接 겪어 보지 못한 6.25 戰後 世代들
에게 이같은 觀念的이고 口號的인 內容이 결코 實感있게 受容될리
없을 것이며 南北對話以後 朴正熙 大統領의 6.23 宣言으로 우리는
分斷된 韓半島의 北쪽에 共產主義 政權이 現實的으로 存在하고 있
다는 것을 內外에 認定했고 또 그들과 對話를 나누고 있는 現狀
인만치 지금까지의 教育內容과 體制를 轉換시켜야 할 必要가 있다.

지금까지의 教育目標는 反共思想의 確立과 이에 따른 指標로 勝
共統一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같은 것은 앞으로도 窮極的인 目標
로 設定되어야 하겠으나 南과 北이 서로 相對方의 存在는 勿論
體制까지 公認하면서 對話와 往來를 實施하는 現實속에서는 자칫
思考의 混亂을 招來하기 쉽다. 이와 같은 混亂을 막기 위해서는
教育目標를 窮極的인 目標와 當面目標로 나누어 設定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反共은 統一教育에 있어서 基本思想으로 定立되고 勝共統一의 信念을 確立하는 것이 窮極的인 目標로 整理되어야 하겠다. 이런 體系위에서 北韓共產主義 集團의 實體와 그들의 統治圈인 北韓地域의 實相을 正確히 把握케 하여 이를 토대로 被教育者가 各其 獨者的인 知識과 角度로 北韓 共產主義 集團을 批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教育의 当面 目標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統一教育은 이같은 目標를 向해 단계적으로 接近하는 方向에서 諸 教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南北對話 時代에 있어서 統一教育의 教案은 政府의 總力 弘報政策의 體系에서 合理的으로 樹立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其實 極端的이고 盲目的인 反共教育이었다. 南北間의 對話있는 對決의 時代에 있어서 相對方에 對한 正確한 把握과 認識없이 우리體制에 對한 相對的인 優位觀念 扶植과 積極的인 北韓 批判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北韓을 把握하는 教育은 北韓의 實在를 認識시키므로서 우리나라의 한, 部分인 北韓을 忘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서 統一의 意志를 키워 나갈 수 있다. 北韓의 現況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① 北韓 共產主義 集團의 生成過程과 實體 ② 金日成의 實像과 虛像 ③ 北韓의 體制的 理念인 金日成 偶像化 政策의 實態 ④ 統一政策과 對南革命 戰略 等 政治的인 것과 北韓 地域의 現狀을 익히는 ① 國土教育 ② 社會生活과 共產 文化

③ 經濟의 虛實等을 銳利하게 分析, 段階的으로 把握하게 해야 할 것이다.

國土教育은 北韓의 地理와 그들 나뉠의 行政區域, 人口 및 產業 分布 實態, 새로운 共產風物相등의 現況을 익히는 것이다. 또 社會生活과 共産文化는 北韓式 共產主義 社會에서 實在로 이루어지고 있고 個人 및 團體生活, 思考分析 및 衣食住 樣式등을 소개하는 敎課가 되고 共產文化란 北韓의 붉은 文化의 概念과 發展樣態를 寫實的으로 알아보는 敎課가 될 것이다. 이같은 一連의 北韓 把握教育은 南北間 政治的인 「레벨」에서의 對話의 계속은 說明이 되면서도 社會·文化·地理的인 見解의 擴張은 禁斷視하는 教育的 矛盾을 是正하고 나아가서는 各者가 積極的인 北韓 生活相을 生覺 하는데로 批判할 수 있는 資料의 提供이 되는 것이다.

또한 敎案 樹立時 南北對話 問題도 教育內容에 反映되어야 한다. 南北對話의 背景과 意義등은 勿論이고 對話에서 雙方에 依해 提起된 案件에 對한 具體的인 研究와 批判등이다.

우리側 案件의 合理性과 當爲가 充分히 提示되어야 하며, 北韓側 案件의 底意 특히 그들의 對南革命 戰略과의 相關性이 銳利하게 分析되어야 하며, 또한 現實을 無視한 無理등이 具體的 理由등을 들어 批判되어야 한다.

南北間 對話있는 對決의 時代에 있어서 南北對話에서 提起된 案件의 研究야말로 教育目標에 副應할 수 있는 最善의 教育內容이 되며, 또한 總力的인 統一弘報의 推進에 있어 가장 眞摯한 效果

事業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統一教育은 敎場을 넓혀야 한다. 一定한 敎材를 낭독하고 說明하는式의 敎育方法은 特히 統一弘報面에서 보면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과 관계되는 各種 記念地를 見學, 現場敎育을 試圖하고 반드시 前方의 軍部隊를 見學케 하여 南北對話속에 엄연히 實存하고 있는 祖國防衛 戰線을 實感케 하여야 한다. 이같은 前方見學敎育은 前方戰線에서 敵의 實在를 觀測케 하고 前方將兵의 勞苦와 役割을 익히게 함으로써 前後方의 一體感을 實質적으로 助長시켜 總力安保에로의 課外의 收獲도 얻게 한다. 南北對話의 敎育도 會談現場見學은 어려운 일이지만 會談에 參席 또는 參觀한 會談當事者나 報道關係者를 直接 招聘, 會談內容과 함께 분위기, 「에피소드」등을 들려 주고 質問을 받는 것도 하나의 現場敎育이 되는 것이다. 要件대 統一敎育은 단순한 敎課過程의 하나로 보아서는 안되고 總力的인 統一弘報의 一體系에서 보다 實感있고 說得力있게 施行되어야 하며, 特히 어떤 對象物의 注入보다 批判能力의 培養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 弘報事業과 信念

弘報事業은 弘報行政 次元에서 重要한 過程으로 登場된다. 그렇기 때문에 弘報事業은 國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代表的인 弘報事業을 보면 地方巡廻講演, 세미나, 雄弁大會, 反共有功者 표창, 反共展示會, 新聞·TV·라디오등의 매스 미디어活用,

弘報冊子配布, 各種 記念行事 等 事業들이다. 그런데 如斯한 弘報事業은 거의가 지금까지는 政府關係部處나 民間의 統一問題 關係機關까지도 年例 行事에 그치는 어물어물 事業으로 弘報對象의 深底部를 파고 들지 못하고 절도는 實情이다. 또한 弘報資料도 配布만으로 끝나는 印象이다. 그것은 弘報事業을 執行하는 担当者들이 어떤 民族的이거나 國家的인 使命感이나 信念이 없이 그저 때가 왔고 豫算이 策定되어 있으니까 執行하는 惰性에서 아닌가 思慮된다. 하기는 平凡한 俸給者더러 國家的인 信念을 부여하면서까지 統一弘報를 勤耐하라는 自体가 不合理하기는 한 일이다. 적어도 弘報事業만큼은 專門家나 政策公務員이 担当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弘報事業을 執行하고난 뒤에도 效果를 測定하는 體系가 必要하다. 하긴 國策放送公社에서도 莫大한 豫算을 運用하면서도 統一弘報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實情으로 制度的인 권장을 強化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統一弘報를 위한 專担部署를 設置하거나 隨時로 提供되는 統一弘報 資料의 潤色한 放映으로 보다 效果的인 事業에 寄與해야 할 것이다. 여기선 적어도 弘報事業 執行者들의 祖國의 至上課題를 遂行한다 하는 信念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가) 「統一弘報戰略委」 設置

이러한 莫大한 統一弘報의 效果的인 遂行을 위해선 統一弘報를 總括적으로 統制, 調整하는 機構가 必要하다. 現在 統一弘報를 政策的인 次元에서 다루고 있는 部署는 文公部를 비롯, 國土統一院,

中央情報部 等 關係部처가 있지만 戰術的인 次元에서 보다 더 效果的인 運用을 期하기 爲해선 別다른 機構가 없는 形便이다. 政策的인 部署에서 戰術的인 運用까지 管掌해야 하고 그것도 統一的인 體系를 確立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混線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弘報에 直接的으로 關係되는 國土統一院이나 中央情報部 그리고 文公部 等 關係部署의 政策開發公務員으로 「統一弘報戰略委」 같은 機構를 設置하여 政府의 統一政策을 即刻的으로 演繹, 보다 效果的이고 戰術的인 弘報資料를 만들어 配布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統一弘報 資料產室로서 質量的인 供給을 擔當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선 매스컴의 協助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關係專門家를 參與시켜 적어도 統一問題만큼은 國民的 一體感으로 執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祖國統一問題는 民族의 輿望이기도 하지만 國家最高, 最大의 目標요 課題이기 때문에 橫的인 統合意味의 「統一弘報戰略委」 같은 機構를 設置하기가 그리 어려운 問題는 아닐 것으로 思慮되는 바이다.

그렇게 될 때 統一弘報는 곧 國家弘報요, 모든 弘報媒体는 同一한 論理위에서 國家的 次元에서 부여된 義務를 遂行해 나가고 보다 效果的인 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aint, illegible text, likely a scan of a document page with significant noise and low contrast. The text is mostly unrecognizable due to the quality of the scan.

結 論

結

論

以上에서 國內 統一弘報 指針을 發想해 보았다. 強大國의 權力 政治가 오늘의 國際政治의 本質을 이루고 있는 狀況下에서 오랫동안 友誼와 名分보다는 國家利益에 依해 國際政治의 向方이 달라지는 冷酷한 現實을 最近의 國際關係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目睹해 왔다. 힘없는 나라는 國際社會의 激浪속에서 生存하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政治的인 撲搏 身勢라는 事實을 突感할때 當然히 우리의 生存과 發展을 위해 国力 培養만은 무엇보다도 緊要한 問題로서 強調되지 않을 수 없다. 最近 中東社會에서 보여 주는 適者生存의 教訓이 그렇고 越南의 風前燈火 事態와 크메르의 危機 등 印支半島의 赤化悲劇은 우리로 하여금 国力評価에 더없이 좋은 資料를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祖國의 平和統一 基盤造成을 위한 力量 構築이 必要함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政治·經濟·社會·文化·軍事등 모든 分野에서 不斷한 刷新의 기틀을 마련하여 自信있는 國民의 參與와 協同이 集中될때 民主秩序의 確立과 力量이 다져지며, 모든 國民이 自己位置에서 스스로의 職分을 다할 수 있고 또 다 하게끔 條件을 부여해 주어 國家的인 責務를 다할때 總和를 이룩하고 國民的 合意와 國民的 信賴로 国力을 增大하여 統一接近을 實現해 가는 것이다. 統一弘報의 使命과 至上的인 課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無分別한 行爲를 抑制하고 制動할 수 있는 길은 오직 国力을 培養하여 「힘에는 힘, 對話에는 對話」로 相對할 수 있는 能力과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統一弘報에 있어서 國內·國外를 가릴진 없다. 國內건 國外이건 間에 統一弘報의 基本 立場은 우리의 基本目標인 平和統一에 있기 때문이다. 民族의 興望을 안은 祖国의 平和統一의 基本目標은 어떠한 条件下에서도 不變하고 또 우리의 統一은 이 길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 國內라 한것은 우리 大韓民國 國民으로 하여금 北韓의 偽裝된 「自主的 平和統一」 戰略의 虛構性을 把握케 하고 스스로 批判의 眼을 갖게 할 智慧를 터득시키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北韓의 對南宣傳 內容을 解剖하고 金日成의 「自主的 平和統一」 方案의 提示 過程을 과해침으로써 낱말의 強점을 利用한 口號的 戰術性을 露呈 시켰다.

그것은 眞情한 意味의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의 理解와 共鳴을 얻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의 現實的인 妥當性과 合理性을 理解시키는 使命이 곧 統一弘報의 주어진 責務요 그 責務를 보다 効果的인 遂行을 위하여 指針을 마련해 본 것이다.

弘報의 效果的인 方法으로선 5 가지 類型을 들었다. 勿論 그외의 여러가지 方法이 있긴 하나 거의 여기 体系的으로 提示한 方法에 緣由한 것이다.

그것은.

- ① 教育水準에 따라 좋은面, 否定的인 面을 가려서 提示하고
- ② 弘報의 意圖하는 바 結論을 明確히 밝혀야 하며
- ③ 威脅的인 內容이 되어서는 안되고
- ④ 같은 內容을 多樣하게 꾸며서 反復하고
- ⑤ 既存의 欲求를 滿足시켜줘야 한다.

이런 效果的인 方法의 「를」에 다음의 弘報指針(10個項)을 適用 展開시킨다면 보다도 알찬 效果를 얻을 수 있다 하겠다.

<弘報指針 10個項>

- ① 弘報의 內容이 眞實일것.
- ② 輿論의 支持를 받을것.
- ③ 弘報를 宣傳으로 끝내지 말고 行動으로 뒷받침 할것.
- ④ 強力하고 創造的인 리더십을 確立할것.
- ⑤ 效率的이고 統一的인 弘報 組織을 갖출것.
- ⑥ 國家政策의 一貫性이 弘報內容에 담겨질것.
- ⑦ 優秀한 弘報要員을 養成할것.
- ⑧ 政府 各機關의 協助가 이루어질것.
- ⑨ 戰略的 弘報와 戰術的 弘報의 連關性
- ⑩ 綿密한 目標 分析과 效果의 評價

以上の 指針은 完璧한 것은 아니나 統一弘報의 效果的 展開 方案을 發想하는 過程에서 導出된 歸納 指針임을 밝혀 둔다.

우리는 지금까지 統一弘報의 資料 貧困을 너무나도 甚히 겪어왔다. 北韓 實相을 把握하기에도 相當한 苦衷이 따른다. 北韓의

分断 以後의 一貫된 對南 宣傳에 比하면 우리의 對抗 宣傳은 全
無한 狀態다. 이런 問題들을 解決하고 보다 積極的인 統一에의 指
向을 위해 關係 部處의 最高政策 公務員이나 統一關係 專門家 및
매스컴 從事者의 幹部級으로 「統一弘報 戰略委」 같은 機構를 設
置하여 統一弘報의 戰略과 戰術을 堪當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當面한 問題를 提言한다. 그리하여 統一弘報의 機能으로 하여금
民族의 至上課業인 統一問題의 超党的 理解와 參與로 國民的 一體
感을 이취 国力을 培養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統一弘報는 国力弘報이며 따라서 國民은 統一弘報 要員이 되어
야 한다.